

“인생의 고희 즈음 자연의 의미 관조”

시인인 백수인 평론가, 시집 ‘겨울 언덕의 백양나무숲’ 펴내 은퇴후 장흥에 낙향... ‘송기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등 분주 “시인은 작곡가와 같아... 좋은 시 쓰려면 기본 잘 익혀야”

“정년퇴임 1년여를 앞두고 고향집을 지키시던 어머니가 작고하셨습니다. 종손인 저는 광주에서 고향집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번 작품들은 모두 정년 퇴임 후 문학지에 발표한 시들을 엮은 것입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가 최근 신작 시집 ‘겨울 언덕의 백양나무숲’(문학들)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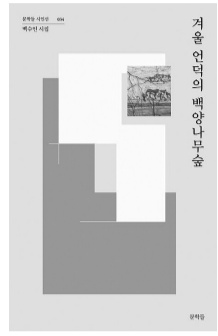
지난 2020년 조선대 국어교육과에서 정년퇴임 후, 시인은 자신의 뜻자리로 낙향했다. 고향을 기념해 발간한 이번 시집에는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다수 담겨 있다.

“삶의 환경이 도회에서 시골로 바뀌며 자연과 더 친근하게 됐다”는 말에서 작품집이 포괄하는 자연의 서정성이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고희를 넘어서는 삶의 과정에서 자연의 의미를 관조해보고 싶었다”는 뜻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됐다.

그동안 시인은 장흥과 광주를 오가며 바쁘게 지냈다. 가끔 문학 강연이나 강의도 했으며 고향에서 ‘한국문학특구포럼’ 대회장, 장흥문학상 운영위원 등을 맡아 여러 역할을 소화했다.

그는 문림의향(文林義鄉) 장흥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다. 예로부터 장흥은 바다와 인접한 데다 해안선이 길어 왜구들 침략이 잦았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의 전쟁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의병들이 분연히 일어나 싸웠다. 또한 고향 사람들은 의로움과 아울러 ‘문학특구’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장흥은 기행가사의 효시인 ‘관서별곡’을 지은 백광홍을 비롯한 위세직, 노명선, 위백규, 이상계, 이종전, 문계태 등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현대에는 송기숙, 이정준, 한승원, 이승우 등 기라성같은 작가들이 나와 우리나라 소설 문학을 주도했지요. 이에 정부는 2008년 장흥을 ‘한국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한 바 있죠.” 장흥의 문림의 맥은 지난해 더욱 빛을 발했다. 한



승원 작가의 딸 한강이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장흥 문학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 이 같은 결실은 장흥의 자연 환경, 역사적 환경 등이 토대가 됐다. 문학적 DNA는 예술가를 키운 자연적, 인문적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다. 백 시인의 이번 시집은 장흥의 자연에 대한 헌사로 읽힌다. 물론 자연을 상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심은 시인의 깊은 내면으로 향한다.

“겨울날 백양나무 숲으로 걸어들어가네/ 찬바람이 나무 사이사이를 휘저을 때/ 그들은 호흡을 멈추고 하얀 피부를 드러낸 채 서 있네/ 나도 그 곁에 나란히 서네//(중략)// 내가 그 숲에 머무르며/ 한 그루 백양나무로 찢꽂히게 서 있는 동안/ 백양나무들은 모두 이 숲을 건너/ 하나하나 저 언덕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네// 이제야 멀리 바라보이는 저 언덕의 백양나무 숲”

표제시 제목으로 차용된 ‘사발하는 마음’은 화자가 겨울날 백양나무 숲으로 들어가 겨울 풍경을 바라보고 사유하는 내용을 읊었다. “웃을 하나하나 벗어던진 나무들의 모습에서 화자는 “작은 사남의 인사귀까지 아낌없이 버리는 일 그것이 내 삶의 겨울을 건너는 몸짓이네”라고 되뇌인다.

백 교수는 장흥으로 낙향 이후, 송기숙기념사업회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장흥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광주에 분부를 둔 ‘(사)송기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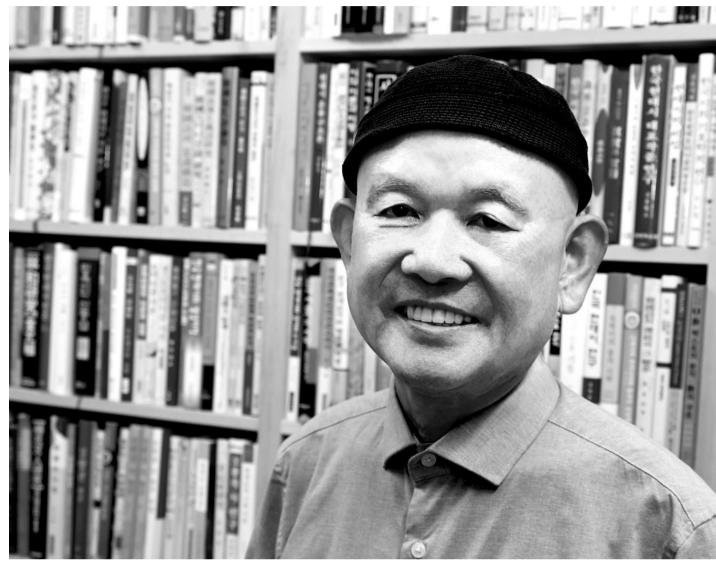
생기념사업회’ 부이사장직을 맡아 ‘행동하는 지식인’이자 ‘민중문학의 거장’ 송기숙의 삶과 문학을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시도 쓰고, 평론도 쓰고, 강연도 하고, 선배 문인 현장사업에도 참여하며 험직 때보다 더 바쁘게 생활한다. 그럼에도 항상 시의 자리로 돌아온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인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살아왔기에 결과적으로 평생 시와 함께 살아온 삶이었다. 시단에 늦게 등단해 자칭 ‘게으른 과작의 시인’이었지만 “시를 쓰는 일은 바로 스스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본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시를 가르쳤던 만큼, 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애정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시를 음악에 비유하자면 시인은 작곡가라고 볼 수 있지요. 노래 한 곡을 만들려면 작곡에 대한 기초 이론을 다져야 하듯, 시작에도 기본적인 문장의 이론을 익히지 않으면 좋은 시를 창작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시는 결국 마음과 사유를 글로 표현해 내는 것이기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수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백 시인은 ‘시와 시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바람을 전승하다’, 저서 ‘현대시와 지역문학’, ‘기봉 백광홍의 생애와 문학’ 등을 펴냈다. ‘시와 시학’, ‘원탁시’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배우는 국악

임방울국악진흥회 ‘국악교실’ 민요 등 5개 분야 각각 20여명 선발



작년 임방울국악교실 송년국악한마당 발표회 장면.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제공》

판소리 시민체험장에서 판소리, 민요, 한국무용 등 우리 국악을 배울 수강생을 찾는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2025년 임방울국악교실’에 참여할 수강생을 오는 10일부터 방문, 전화로 모집한다. 민요, 판소리, 한국무용, 고법장고, 가야금병창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강좌별 20명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본 강좌는 3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6층에 마련된 판소리 시민체험장에서 진행한다. 먼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판소리’ 부문은 제21회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리꾼 원진주가 맡는다. 제23회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리꾼 미미숙

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요’를 지도한다.

화요일 개설되는 ‘한국무용’ 부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 이수자 김덕숙이 맡는다. 이어 ‘고법·장고’ (목요일)는 판소리 고법 전수자 한정민이, 같은 날 ‘가야금 병창’은 제14회 임방울국악제 가야금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장아가 강의한다.

임방울국악진흥회 관계자는 “국악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전통예술의 정체성 확립, 지역 예술 역량의 축적 등을 위해 향후 국악교실이 매개가 되면 한다”고 했다.

수강료 월 1만 원(전 강의 주1회 2시간).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문화가 있는 날 ‘책 문화 day’

광주 문화의숲도서관, 명작 도서 필사 등 연중 프로그램 다채



지난 ‘책 문화 day’ 행사에서 그림을 그리는 참가자들.

《문화의숲도서관 제공》

광주 문화의숲도서관(서구 마재로 3-이하 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과 맞물려 ‘책 문화 day’ 행사 등을 진행한다. 도서 대출 2배 이벤트 외에도 체험 활동, 연중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월에는 ‘동글동글 맛있는 도넛 오일 파스텔 일러스트’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3월에는 ‘포근한 오일파스텔&명연 캘리그래피’로 의미 있는 경구를 필사하게 된다.

이에 앞서 1월에는 ‘오일 파스텔과 캘리그래피’를 주제로 ‘새해 복부머니&덕담 캘리그래피’가 진

행된 바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에서는 매월 ‘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1월 명작 도서를 필사하는 ‘필사하기 좋은 도서’, 2월에는 저마다 새해 목표를 세워보는 ‘동기부여 200%’ 행사가 열린다. 3월 ‘설레는 봄, 설레는 북’, 8월 ‘한강 플레이 리스트’를 비롯해 10월 ‘알록달록 가을을 담은 사-에세이’ 전도 준비돼 있다.

재료비 무료, 매월 선착순 사전접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정순애 사진작가 ‘광주사진문화상 창작상’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정기총회

시인인 정순애 사진작가가 광주사진문화상 창작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윤판문)는 지난 25일 광주예총 지하 방송소리공연장에서 제63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 작가에게 광주사진문화상 창작상을 수여했다.

이번 상은 당해 연도(2024년)에 가장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고 광주광역시지회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회원에게 주는 상이다.

정 작가는 제18회 광주사진대전에서 대상을 수

상하는 등 뛰어난 창작활동과 광주광역시 사진협회 선양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제40회 무등미술대전에서 ‘인생길’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정 작가는 “예전에는 사진의 예술성에 대해 많이 알아주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술 장르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상을 계기로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면서 “앞으로도 사진을 통해 감동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많이 촬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정순애 작가(왼쪽), 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윤판문 회장. <정순애 사진작가 제공>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